

中國學의 학문적 범주와 접근방식

崔振默*

1. 머리말
2. 중국의 전통 학문분야: 中學
3. 인문학으로서의 중국학: 東方學과 漢學, 支那學
4.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
5. 餘論: 한국에서의 중국연구

1. 머리말

최근 인문학의 위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인문학의 성격이나 위상설정 및 방향정립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¹⁾ 이러한 논의의 발단이 비록 인문학 외적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는 요인이 크기

* 서울대 동양사학과 강사

- 1)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편,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서울대 출판부, 1984)은 비교적 오래된 인문과학의 방향설정과 관련한 연구성과이지만,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서울대 출판부, 1997) 및 경상대인문학연구소편,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백의, 199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저,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민속원, 1998)등 인문학의 자기반성과 향후 진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최근 인문학의 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다.

는 하지만, 그동안 대학내에 안주하면서 사회변화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역할과 방법론등을 성찰하는게 게을렀던 인문학에게 나름대로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질적 향상은 부단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인문학위기 논의는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논의의 핵심을 인문학의 정체성확보에 두든, 정책당국의 인문학 정책 방향에 두든지 간에 현재 인문학연구와 교육의 현상타개와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학 일반의 학문적 성찰이 인문학내 각각 개별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범주에 머물러 있는 중국학도 이 인문학의 위기상황에서 별반 자유로운 편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때, 중국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논의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중수교이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중국학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성과는 반드시 이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단지 현실과 학문의 괴리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문학의 퇴조상황에서 나타나는 동반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존 중국학연구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반성해보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나가는데 있어 가장 일차적인 과제인 것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중국은 오늘날의 국체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殷周이래 秦漢, 明清을 거쳐 현대중국에 이르는 역대왕조를 이어 만들어진 역사적 지역개념임을 전제하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연구로서 중국학의 개념과 그 범주를 살펴보면서 한국에서의 중국학연구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지 탐색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 글은 새로운 提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해보는 취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국학에 대한 접근방식의 부단한 모색과정이 앞으로의 중국학 위상정립에 다소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2. 중국의 전통 학문분야 : 中學

전통적으로 동양에서의 학문범주는 文, 史, 晝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것은 중국의 오래된 학문전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전통학문의 형식은 도서분류체계에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전통중국의 도서분류법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前漢代 劉向 劉歆 父子의 『別錄』과 『七略』에 의한 도서분류가 시도된 이래, 『隋書』 經籍志에서는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이 등장하면서 지식의 분류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이 체제가 清代 『四庫全書總目』의 편찬으로 일단 집대성되지만, 이러한 지식분류가 학교나 서원등의 교육과정과 결합하면서 전근대내내 중국의 학문전통으로 자리잡아 왔다.²⁾ 『칠략』에 의하면 六藝, 諸子, 詩賦, 兵, 術數, 方伎등이 당시의 주요한 학술분야였으며 이것은 다시 38개의 소분류로 세분되었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론된 六藝는 유가경전인 六經을 의미하여 통치사상의 주류를 이룬 유가의 사회적 위치를 엿보게 하며, 諸子は 현대의 철학에, 詩賦는 문학에, 兵은 군사학에, 術數는 천문 역법 지리등이 포함된 자연과학에, 方伎는 화학 및 의약학등에 각각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류는 先秦시대에서 前漢시기까지의 중국의 학술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당시 학문에서 유가사상의 주도적 지위의 인정, 과학과 미신이 혼재된 자연과학의 수준, 독립된 史部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史學의 미발달정황등을 발견할 수 있다.

『칠략』의 분류법은 이후에도 한동안 적용되었지만 『수서』 경적지에 의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칠략』의 분류법에서 經·史·子·集의 四部分類體系로 전환된 계기는 漢代 학술이 한 단계 완성된 이후 위진시대에 들

2) 李成珪, 「동양의 학문체계와 그 이념」, 『현대의 학문체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민음사, 1994) 참조

어서면서 불교 도교등 새로운 학문의 유입에 따른 분류상의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수서』 경적지의 실제분류는 經·史·子·集 외에 道·佛이 포함된 六部分類方式였던 것이다. 經部는 다시 10류로 세분되는데 緯書가 첨가되기는 했지만 『칠략』의 육예와 유사하고, 史部는 새로이 독립설정된 부분으로 13류로 나뉘어졌지만 南朝 梁代 阮孝緒가 지은 『七錄』의 紀傳錄에 대응되며, 子部는 『칠략』의 子兵錄과 術技錄을 합친 성격이다. 한편 集部는 『칠략』의 詩賦에 해당한다. 『칠략』에서 『수서』 경적지까지의 변화는 개괄적으로 史部의 독립, 兵·術數·方伎의 子部편입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일시 실시된 五部分類法에서는 술수 방기가 독립되기도 하였다. 특히 도·불의 처리는 『수서』 경적지처럼 정식분류뒤에 첨가하기도 했지만, 『신당서』 예문지와 『구당서』 경적지에서는 자부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부분류법은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어도 전근대 중국에서 면면히 정통 도서분류법으로 자리잡아 청대까지 학문분야 설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학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영역이 계속 개척 등장하면서 고정된 사부분류법으로는 그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한 일부 지식인들이 8류나 12류 혹은 14류등 각종 다양한 분류법을 제시하여³⁾ 4부분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시도도 물론 있었지만, 모두 사부분류법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청대 乾隆년간 편찬된 『四庫全書總目』은 사부분류법의 최고봉이었다. 經部를 10類로 史部는 15류로 子部는 14류, 集部는 5류로 나뉘었지만, 類아래에 다시 서적의 성질과 수량 연대등을 고려하여 총 44類 65屬으로 세분하였다. 이 분류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문자학 음운학등의 등장과 함께 史部의 정치학 행정학적 성격의 강화와 더불어 지리학 금석학등을 포함한

3) 宋代 李淑이 『邯鄲書目』 10권을 지어 經史子集 이외에 藝術志, 道志, 書志 畫志 4類를 첨가하여 8류로 한 것이나, 남송초 鄭樵가 『通志』 2백권을 지어 『藝文略』에서 도서를 12大類로 분류한 것, 明代 『文淵閣書目』을 모방한 陸深의 『江東藏書目』에서는 群書를 14類로 분류한 것등이 그 예이다.

史學영역의 확대, 도교 불교등 종교의 철학적 성격 강조, 과학과 擬似科學의 구분, 음악 미술등 기예의 학적 성격 부여, 문학에서 비평적 이론적 요소의 확충등을 거론할 수 있다.⁴⁾

이상과 같은 도서분류를 통해 볼 때, 이것이 전통중국의 모든 지식을 포괄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과 자부는 철학영역에, 사부는 물론 사학에, 집부는 문학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중국의 지적 전통이 文史哲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적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전통중국에서 政教一致思想과 科擧制度의 시행등은 학문을 功名利祿의 길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 때문에 儒敎 經書가 지나치게 중시되고 이외의 학문은 모두 無用하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도 학문의 인문적 성격조성에 기여하였다. 동시에 通才를 숭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術과 藝로 인식 홀시한 전통관념 역시 曆法, 算術, 醫藥學등의 자연과학분야의 학문발전을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만든 주원인이었던 것 같다. 더구나 인문학적 전통속에서도 언어 문자 및 철학 사학 지리등은 독립된 분과를 유지했지만, 법률 정치 재정 경제등의 부분은 부속적인 위치에 있거나 구분이 모호한 상태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근대이후 西學의 수입에 의해 이러한 지적 전통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 經學의 절대화와 文學과 史學의 중시등 인문적 전통으로 표시되는 전근대의 특징이 근대이후 經學 해체과정의 본격적 진행과 더불어 서구적 자연과학개념이 도입되는 등 새로운 학문영역과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도서분류법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新書'들이 출현하면서 중국전통학문의 형식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권위를 갖었던 四部分類體系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七略』에서 『隋書』 經籍志를 거쳐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는 중국의 도서분류체계는 각각 고, 중, 근세 시기의 학문을 총괄한 것이며 시대적 변화에 순응한 학문체계상의 변모를 반영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학문분

4) 李成珪, 「동양의 학문체계와 그 이념」, 「현대의 학문체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민음사, 1994)

류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물론 이 도서분류법에 따른 학적 체계를 오늘날 중국연구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현대 중국학의 범주설정에 주는 시사점은 크리라 생각된다.

3. 인문학으로서의 중국학 : 東方學과 漢學, 支那學

중국 전통의 도서분류체계를 통해 볼 때 전통중국의 학문은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의 범주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중국학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전통에 대한 탐구여야 한다는 점도 異論의 여지가 없다. 즉 중국의 언어 문학 역사 예술등의 영역에 대한 학습을 포괄적으로 중국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학의 범위는 매우 광활하여 그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16, 7세기 서학의 유입과 아편전쟁이후 서구의 충격에 따라 五四期 중국에서도 國學의 범위와 평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도 벌어졌다.⁵⁾ 이러한 논쟁은 전통에 대한 인식의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통학문을 모방 숭배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다만 객관적인 연구대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胡適은 國故學의 준말로 國學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역사적 안목으로 국학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료의 가치에 대한 탐구 및 계통적 연구, 비교연구를 제창하여 중국문명의 보존을 넘어 정리를 통한 재건을 주장하였다.⁶⁾

5) 1919년 이후 劉師培 黃侃이 창간한 『國故』와 毛子水의 『新潮』사이의 國學論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劉師培등은 중국고유의 학술을 널리 알리고 더욱 밝혀야 한다(昌明)는 입장에서 국학을 옹호했지만, 胡適등은 전통학술문화를 절대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고 시대에 맞게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통학술문화의 정리(整理國故)를 전면적으로 주장했다.

6) 민두기,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 ; 호적(1891-1962)의 사상과 활동』(지식산업사, 1997)

그러나 郭末若은 국학의 범위를 넘어야 비로서 국학의 진상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서방근대의 과학방법 및 마르크스주의등을 도입하여 국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내 자신들의 전통과 학술에 대한 자기반성과 비판이 중국전통학문의 정리와 체계화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서학을 수용하여 중국의 근대학문을 발전시킨다는 식의 대체적인 골격은 세워진 것 같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구의 학문분류모델이 도입되고 대학의 학과가 설치 운영되면서 전통적 학문을 서구의 체계와 방법에 의해 배우는 모순이 내재하게 되었으며, 서구 자본의 논리와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논리가 병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서구적 방법론이 가미된 이러한 국학의 관념과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연구해왔던 漢學(Sinology)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학이라는 용어대신에 전통중국의 언어 역사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漢學이라고 칭하는 것은⁷⁾ 바로 이 때문이고, 이로 인해 학문분류도 전통적인 四部體系나 章炳麟식의 小學 文學 諸子學등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문학 사학 고고학 및 문자 언어학등의 전문적이고 계통적인 방식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早期 서구의 한학은 본래 16, 17세기이후 西勢東漸의 역사속에서 외교관 선교사 상인 여행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東方學(Orientalogy)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동방학은 아시아와 주로 북아프리카 각국이 연구대상이 되며, 그 지역의 역사 언어 문학등 물질과 정신문화의 각종 분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동방학의 한 구성요소였지만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성격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 서구 동방학의 이론적 기초는 대체로 지리환경결정론, 地緣史觀이 아니면 絕對精神決定論, 서구중심론이었고, 동방의 찬미보다는 서구사회에 비해 동방

7) 李學勤, 「漢學漫話」, 『東方』 1995-1 ; 臺灣의 漢學研究中心도 전통중국과 현대중국연구를 구분하여 전통중국연구에 대해서는 漢學, 현대중국연구는 중국연구(Chinese Studies)라 하여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漢學研究通訊』 1992년 6월)

사회의 낙후와 정체를 설명하는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동방학은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로 인식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들어오면서 점차 동방학의 논리처럼 서방의 눈으로 중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자체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학의 동방학으로서의 이미지는 희미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동방학이 중국학연구에 일정정도 기여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중국에 대한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에 이끌리어 개인적인 흥미와 호기심에 의해 시작된 초보적인 수준의 동방학으로서의 중국학은 점차 직업화되고 전문화된 중국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하나의 학문분과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방법론상으로도 중국학연구에 있어서의 언어와 문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부터 고전경전의 번역과 주석 비판 및 문자고증학 문헌학등의 분야를 연구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교육함으로써 19세기 중국학등장의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스웨덴의 저명한 중국학자 Karlgren(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1889-1978)이 중국음운학 및 漢語理論, 漢語史 등의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19세기 漢學(Sinology)이 정식 출현하면서 중국학은 발전의 제 2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이 직접적인 연구대상과 연구수단이 됨으로써 중국학전문기구의 설립이나 직업화된 중국전문가가 등장했다는 점은 이 시기 커다란 특징이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점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지 특히 서북부 등지의 탐험과 답사들이 실행되어 敦煌文書 등 고문서와 고고자료등이 발견,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상생활과 서적만에 의존했던 연구를 넘어 지하의 고고자료의 발굴등으로 문화인식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7, 8세기 중국학이 단지 다양한 외국어중의 하나에 불과한 외국어학이거나 자국에 간단히 소개되는 新聞知識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 시기의 중국학은 전문성이 가미된 중문과 혹은 사학과적인 성격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

한편 일본에서는 明治維新 이후 자신들 전통의 한학을 계승하고 서방의 중국학을 흡수하면서 중국사상과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支那學’이 성립되었다. 지나학은 주로 朱子學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성격이 강했지만, 그 후 프랑스계통의 동방학이 유입되면서 지나학중에 ‘동양사’연구가 출현하였다. 동양사는 물론 중국사위주였지만 역사 경제 종교 예술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학은 동양사라는 명목하에 유럽의 동방학이나 중국학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국연구에 있어 일본만이 갖는 역사와 지리 동시에 문화상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특색을 가진 일본식의 ‘중국학원리’를 창조해내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이와 같이 동방학에서 한학, 그리고 지나학등 중국학은 각기 연구과정에서 학문적 범주와 개념을 다소 달리하면서 존재했지만, 궁극적으로 전통상의 文獻과 古典을 중시하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중국학은 ‘전통을 중시하고 현실을 경시’하거나 ‘실증을 중시하고 이론을 경시’하는 이른바 순수학문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견지에서 현대 서구의 학문체계상 인문학적 범주에 있음도 자명하다. 그런데 동방학이든 한학이든 이 시기 중국학은 중국전통의 經·史·子·集도 아니고 문학·역사·철학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아직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어도 중국의 물질 정신문화에 관한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관심을 끈다. 또한 이러한 중국학은 현대 중국학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새삼 상기시켜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전통연구에서 고전경전의 주석과 비판을 漢學家的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문헌학 및 고증학적 기초를 중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文史哲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자학, 목록학, 역사지리학등 실증의 기초가 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청대 고증학의 전통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문헌해석과 그 자료적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는 물론이거니와 언어와 지리적 환경의 숙지

등도 중시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경향상으로 볼 때 초기 중국연구는 종합적 개관적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점차 역사 언어 문학 예술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증을 중시할 뿐 여전히 체계화된 연구는 별로 시도되지 못했고 이론체계를 구축하려는 사회과학적 개념도 활용되지 못했다. 사실 연구분야나 주제의 선택은 개인적인 조건과 결부되는 있는 것으로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혹은 연구가 있어도 불충분하다든지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따라서 우표수집가처럼 중국전통중의 특이하고 조그만 사건이나 현상에 주목하고 중화문명 해부의 구조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흘시하는 연구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연구자가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건도 되지 않지만, 한 시대 혹은 통시대적으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나 틀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예컨대 명청시대연구에서의 인구문제는 그 당시 사회경제상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개념일 수 있으며, 근대중국에서의 서구의 충격 내지는 충돌은 근대사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점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역사적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방에 대한 일방적인 멸시와 부정, 혹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찬미관, 근대의 제국주의적 가치관등등 중국에 대해 갖는 고정된 가치관이 가져온 폐해를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이, 종전의 서구중심론이 극복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세계 주요한 문명의 교류로부터 인류공동의 문제해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는 견지에서 중국연구에 있어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유지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중국학이 인류역사전개를 거시적을 살핌으로써 근대이후 동서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문명권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문학의 주된 사명을 담당하는 길이기도 하다.

넷째, 중국전통의 자연과학과 기술에 관한 관심의 제고이다. 의약학 연

금술등등 현대의 자연과학분야에 해당되는 전통학문은 중국 전래의 ‘天地人合一’사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본래 인문학적 전통과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중국전통의 학문을 서구적 개념으로 분류했을 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

한편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동아시아를 공동의 문화를 갖는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고 세계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자적 지역체제로 파악하는 ‘동아시아담론’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중국등 동아시아 삼국중에서 중국은 이 지역체계의 구성에서 가장 비중있고 중심적인 국가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학적 관점으로 문헌과 고전에 의한 인문학적 중국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과학적 이론적 틀을 중국연구에 적용하여 중국에 대한 현실적 정책적 수요에 응하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이중에서 특히 동아시아론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세계의 한 지역으로서의 갖는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하는 중간 결절점으로서의 지역단위의 필요성속에서 동아시아는 주목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특히 서구중심의 사고방식과 서구적인 근대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동아시아의 모색은 적절한 대안일 수 있었다.⁸⁾

그러나 지역연구는 용어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중 전사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논리에 의해 정착되었던 것으로, 실

8) 최원식 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 19-20세기』(문학과지성사, 1997); 김광익, 「동아시아담론의 문화적 의미」(『정신문화연구』 21권 1호, 1998); 김경일, 「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이론」(『정신문화연구』 21권 1호, 1998)등 참조

천적 전략적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된 분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연구는 국가 정책수행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지역인식이나 구분에 있어서 자의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동아시아라는 개념도 동아시아 자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자신을 보다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대비되는 대상물로서 고안되었거나 제국주의등을 이용하여 만든 허구라는 지적도 고려할 때 개념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동아시아 스스로의 의지와 힘에 의해 존재되는 실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물론 1970년대 동아시아지역에서 보인 역동적인 경제성장은 오히려 이 지역이 주목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동아시아가 서구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절대성과 환상에서 깨어나면서 동아시아사회가 갖는 일련의 자신감과 기대의 반영으로 동아시아가 갖는 공동의 실체의 해명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연구가 지역과 문화라는 두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단위로 성립된다면 어떠한 문화적 공통성을 갖는가 하는 점의 해명이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일찍이 漢子의 사용, 儒敎의 전통, 佛敎文化의 영향, 律令制度등의 요소를 들어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과 역사적 단위로서의 당위성들이 연구되어 왔고, 동시에 가족주의 혈연주의 자연주의등의 문화적 특징들도 서구와 대비되는 동아시아적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동아시아문화의 특질이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 비과학적, 정체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서구에 못지않는 문화적 전통을 갖는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아시아문화에 대한 기존발상의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적 전통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유교지본주의론도 등장했던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공통성장조와 문화에 대한 긍정일변도의 평가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정확한 실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동아시아인 스스로 자신의 신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론이 동아시아 내부의 국가나 민족, 지방등 하부단위간의 차이, 동아시아 삼국의 전근대 역사에서의 특수한 관계등에 관해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다만

지리적 공간적 개념에만 주목한다면 동아시아담론은 허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문화권속에서 중국을 그 구성의 한 요소로 보려 할 때, 동아시아문화의 공통성과 동질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 해명을 위한 중국 연구는 분명 하나의 실례연구이상인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동아시아문명의 발원지로서 세계 4대 발명품을 만들어낸 전근대 최고의 기술국가로서 그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이해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전통적 中華主義의 복고나 또다른 중국중심주의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동시에 戰前 日本의 대아시아주의의 재현이 되어 중국에 대한 편향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객관화하여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중국은 사실상 그 내부구성상으로는 민족 언어 풍속등의 면에서 상당한 다양성과 이질성이 혼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정치적 통합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그 자체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연구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권속에서의 중국연구는 결국 韓中日 교류사나 관계사 혹은 비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주로 접경지역으로서의 중국의 동북삼성이나 동남부 해안지역등 일부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국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본다면 현재 중국의 정치적 범위를 모두 포괄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이러한 지역개념에 의한 중국연구는 연구영역상으로도 인문학은 물론이거니와 정치 경제 사회등 사회과학의 각각 독립적인 분과학문이 개별적으로 연구하던 중국을 지역개념하에 종합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분과학문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에 대한 세분화되고 단편적이고 지식을 총체적 지식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분과적 통합을 지향하고 다학문

체계의 필요성과 종합적 과학의 정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지역연구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이론과 방법의 확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로 학문적 정체성확보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다방면 분과학문의 전문가가 함께 지역연구에 참여한다해도 각기 이론과 방법론을 달리하는 한 진정한 학제적 통합을 완성하기 어렵고 단지 전통적 학문 분과들과의 타협과 절충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⁹⁾ 특히 직면한 중국의 현실에 대한 관심의 극대화가 현대중국이해의 전제로서 중국의 전통 즉 언어 풍속 종교 역사 문화등의 요소에 대한 관심의 부재로 나타난다면, 현재현상을 설명하는 장기지속적인 역사적 구조와 연속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현상의 외형적 관계에 대한 분석에만 관심이 집중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연구에 역사학적 연구방법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다.¹⁰⁾ 실제로 전후 미국에서 이러한 지역학개념의 중국연구를 주도했던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의 중국학은 근현대중국연구를 주대상으로 하면서도 역사학이 주체가 되어 기존학과의 경계를 허문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실문제해결에 치우친 지역연구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연구주체나 시각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官方史나 影射史學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극우의 맥카시주의가 유행할 때 미국에서의 중국연구는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역연구로서의 중국학이 가지는 한계였다. 더구나 원대한 이론체계의 구축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역사현상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중국학연구에서 ‘규범인식위기’(Paradigmatic Crisis)를 초래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¹¹⁾ 그럼에도 학술연구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지역학은 정치가나 신문기

9) 김정일 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문화과학사, 1998) 참조

10) 이상신, 「한국서양사학에서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참조

자에게 현실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했던 전통 漢學연구나 역사연구가 초래한 현대의 인문학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다.

5. 餘論 : 한국에서의 중국연구

해방후 중국과 수교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는 세계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정치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자료의 구득은 물론 학문연구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서의 중국사 연구가 학문연구의 생명인 독창성과 객관성확보에 있어 여타 외국이나 심지어 자국인 중국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¹²⁾ 이러한 측면이 중국학에 대한 학문적 동기를 크게 자극하는 것이지만, 중국학 연구가 단지 개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굳이 중국을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전공자들이 고민하고 언급했지만, 다음 세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 중국연구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물론이거니와 전통문화의 영향과 교류에 대해서도 새삼 다시 언급할 것도 없지만, 同源異流라 할 정도로 우리 전통의 형성과 유지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자기전

11) Philip C. C. Huang, *The Paradigmatic Crisis in Chinese Studies, Paradoxes in Social and Economic History, Modern China*, Vol 17 No 3, July 1991. 저자는 중국사의 실제로부터 중국사회경제사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규범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시적 사회연구를 강조했다.

12) 李成珪, 「中國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문제점·활성화방안연구』(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센터, 1990) 참조

통의 계승과 발전에 무관심할 수 없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중국학은 우리 학문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은 자명하다. 근현대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비록 朝鮮時代 士大夫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방식과 수준이 현대 중국학에 그대로 계승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중국문화수용의 태도 및 접근양식을 통해 현대 중국학 방향설정의 지표를 얻을 수도 있다. 선구적인 중국학 연구자들이 朝鮮學人의 중국사연구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도¹³⁾ 이러한 중국학연구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구관심이 결국 國學研究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자명하고, 중국학에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서의 입지와는 별도로 국학의 보조학문으로서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둘째, 인문학적 관심으로서 인간의 행위와 활동등 인간의 존재형태와 문화에 대한 한 사례연구로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사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의 한 목표라 한다면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발견을 위해 세계각지의 다양한 민족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문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比較文學의 필요성등이 강조되었던 것도¹⁴⁾ 이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세계문명중에서의 중국문명의 위상, 적어도 전근대 우리에게 유일한 문명적 가치를 가진 대상임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해 다른 외국과 차별적인 관심이라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세째, 동아시아체제론의 일환으로 그 한 구성원으로서의 중국이거나 중국 그 자체가 한 지역단위로서 연구되는 현재적 관심대상으로서의 중국이다. 현대의 세계질서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했던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이른바 '네 마리 작은 용'을 거느린 '거대한 용'으

13) 閔斗基 吳金成 李成珪, 『朝鮮學人의 中國史研究의 整理 및 評價』(서울대 동양사학과, 1980)은 이런 분야의 선구적인 것이지만, 계속하여 李成珪,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이해』(震檀學報 74, 1992)등은 그 후속작업이다.

14) 조동일, 『우리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69) pp. 252~257

로 아시아의 맹주임을 자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되고 후진적인 상태이지만 무한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상대할 능력있는 유일한 국가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서운 이웃중국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계체제의 이방인이 될 지도 모른다.

우리 전통이해의 초석으로서의 중국학, 인간과 그 문화를 중시하는 순수 인문학적 관심대상으로서의 중국, 국제정치와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지역학적 측면의 중국학, 이상의 세가지 관점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왜 지속적이어야 하는가의 의문에 대한 소략한 해명이 될 것이며, 한국에서의 중국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논리일 수 있다. 이 세가지 관점은 상호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고 연계된 것이다. 이 관점들을 종합화하여 모두 기능할 수 있게 한다면 중국연구는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지역학으로서 중국학 전공자를 양성한다고 할지라도 언어나 역사등 전통한학에 대한 일정한 수련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역으로 인문학적 대상으로 중국의 전통에 관심있는 전공자라도 현대중국의 정치 사회 동태나 현대 중국지식인들의 고뇌등 현대중국의 시사적 문제에도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현지조사등의 활동도 당연히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과학문의 전공연구만을 학문성취로 인정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사전류의 편찬, 사료의 정리, 연구문헌목록의 정리등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등이 종합적인 시각의 중국학 연구를 촉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교연구에 힘써야 하고 정치사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확대하고, 인문학내에서의 교류등 학문간의 상관성을 확보하는 일, 전공의 벽을 넘어 교류 활성화, 횡적으로 관류하는 연구방법과 이론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전공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중국학은 반드시 그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예컨대 대학의 學科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中國學과 관련된 학과들로 '중국학과', '동아시아학과' '중국통상학과', '사학과' 혹은 '동양사

학과, '중어중문학과' 혹은 '중국어학과', '철학과' 또는 '동양철학과', '유학과', '한문학과', '지역학과' 등 매우 다양하여 이들 학과가 각기 어떤 의미에서의 중국을 설정하고 있고, 연구와 교육의 영역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과간의 연계성도 파악하기 쉽지는 않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한국에서의 중국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분과학문을 넘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한편 우리의 중국연구가 전전 일본의 경우처럼 동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정치적 야심과 결합하여 수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경문제 및 정치외교문제와 맞물린 러시아의 최근 중국연구처럼 중국을 비하하기 위한 노력이어셔도 안된다. 물론 근대초기 유럽의 중국연구가 서에서 동으로의 진출을 위한 팽창정책의 초석이었다는 점, 전후 미국의 경우도 현실적 전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등은 우리의 중국연구에서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 스웨덴등의 유럽의 중국학이 순수한 문화의 비교와 교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학문연구에서 현실적 실용가치와 순수 학술가치간의 논쟁은 오래된 難題이다. 실용을 중시하는 일반인들은 순수학술연구의 無用을 주장하지만, 학자들은 일반인들의 庸俗함을 질책하고 순수학술의 독립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회의 수요를 중시하는 학자들과 순수한 학술연구를 중시하여 당세의 수요에 구애받지 않는 학자들은 「無用之學」 내지는 「流俗之學」으로 상호 비난한다. 인류의 역사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當代에는 현창되었지만 후대에는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시대든 유용한 학술과 무용할 것 같은 학술이 동시에 병존하는 것이며 양자의 쓰임의 상호교체도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 수요와 순수학술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문학으로서의 측면과 지역학으로서의 양면을 가진 중국학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은 여전히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경상대인문학연구소 편,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 백의, 1993
- 김경일 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 김경일, 「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이론」, 『정신문화연구』 21권 1호, 1998
- 김광익, 「동아시아담론의 문화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21권 1호, 1998
- 閔斗基, 吳金成, 李成珪, 『朝鮮學人の 中國史研究의 整理 및 評價』,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980
- 민두기,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胡適(1891-1962)의 思想과 活動』, 지식산업사, 1997
-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편,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 출판부, 1984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저,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 이상신, 「한국서양사학에서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李成珪, 「동양의 학문체계와 그 이념」, 소광희외, 『현대의 학문체계--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음사, 1994
- 李成珪, 「中國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우리나라 地域研究 現況·問題點·活性化方案研究』, 서울대학교 地域研究綜合센터, 1990.
-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1997
- 최원식 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高路明, 『古籍目錄與中國古代學術研究』, 江蘇古籍出版社, 1997
- 李學勤, 「漢學漫話」, 『東方』 1995-1
- 張靜河, 「西方漢學研究的豐碑--高本漢」, 『學人』 第六輯, 江蘇文藝出版社, 1994

黃俊傑, 「歐美漢學研究的發展: 歐美漢學史國際研討會會前的省思」, 『漢學研究通訊』1992-6月

侯且岸, 「費正清與中國學」, 李學勤主編, 『國際漢學漫步』(上), 河北教育出版社, 1997

忻劍飛, 『世界的中國觀--近二千年來世界對中國的認識史綱』, 學林出版社, 1991

Gauting Herbert Frank 著 古偉瀛譯, 「尋覓中華文化: 對歐洲漢學史的一些看法」, 『漢學研究通訊』1992年 6月

Philip C. C. Huang, The Paradigmatic Crisis in Chinese Studies, Paradoxes in Social and Economic History, *Modern China* , Vol 17 No 3, July 1991